

# 오피니언

## 데스크시각

정 후 식



기 군포)도 고향인 대구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득권’을 과감히 버린 이들의 선택에는 내년 총선 때 중원(中原)과 영남 싸움의 선봉에 서서 승리를 이끌어내 정권 교체에 밀릴 수 있다는 비장함이 엿보인다.

이같은 움직임은 차기 총선을 앞둔 민주당 내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당권이나 대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비례대표 진출설이 거론되는가 하면 호남 중

하지만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지역 의원들은 왜 ‘물갈이’ 화살이 자신들을 겨냥하게 됐는로부터 겸허히 되돌아봐야 한다.

### 변화와 혁신으로 감동 줘야

내년 총선은 12월 대선의 전초전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의 무대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한다. 정권 재창출이 목표인 여당도 물러설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양천갑에서 내리 3선을 한 원희룡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심을 얻으려면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 관건은 쇄신의 의지를 유권자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얼마만큼의 감동을 이끌어내느냐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 중진들의 잇단 ‘지역구 포기’ ‘자발적 물갈이’ 선언은 의미 있게 다가온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 중 5선이 2명, 3선 4명, 재선 7명, 초선은 6명이다. 전복까지 포함하면 3선 이상이 전체(29명)의 3분의 1을 넘는다.

이제 호남의 중진 의원들이 쇄신의 중심에 서야 한다. 과거 선거에서 보듯 호남의 변화가 수도권, 나아가 전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부장> /who@kwangju.co.kr

## ‘호남발’ 자발적 인적쇄신 고대한다

겠다는 각오다.

호남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수도권 출마를 공언한 인사는 당 대표 시절 ‘호남 불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최고위원(진안·무주·장수·임실)에 이어 김 의원(이 두 번째)이다.

민주당의 취약지인 영남 공략에 나선 의원들도 있다. 전북에서 4선을 지낸 장영달 전 의원은 최근 영남 출마를 선언했으며, 수도권 재선 출신인 김영춘 최고위원이 부산 출마를, 수도권 3선 의원으로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김부겸 의원(경

진 의원들의 추가 수도권 진출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호남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마녀사냥식 물갈이는 호남 민심에 대한 모독이며, 인위적 물갈이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물론 무조건적 호남양보론은 곤란하다. 쇄신의 핵심은 물갈이 비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내세우느냐다. “질반을 바꿔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평가를 받아선 곤란하다.” 최근 광주를 방문한 정세균 최고위원의 지적은 그런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 바뀌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쇄신 경쟁의 한복판에 전남 출신 3선인 김효석 민주당 국회의원(담양·곡성·구례)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수도권에 출마할 것임을 전격 선언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 때 수도권에서 전개될 치열한 싸움을 감 건너 볼 보듯 할 수만은 없었다”며 “새로운 인재가 지역과

## 은펜클럽



이 병 우

직장인이 친구나 지인에게 가장 자주 하는 민발문?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위가 ‘언제 밥 한번 먹자’이다. 이를 ‘한국의 풀리지 않은 10대 미스터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언제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유머도 등장했다. 한국인의 ‘언제 밥 한번 먹자’의 ‘언제’가 정확히 언제인지 한 재야 연구가가 오랜 노력과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그 연구가

### “언제 밥 한번 먹자”

는 연구결과를 언제 한번 밝히겠다고 전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술과 밥을 함께 먹으면 친해진다는 속설도 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고 받는 대화들이 서로의 심중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이다.

영에서 동료나 회사를 뜻하는 company의 어원은 com(함께)과 panis(빵)로 ‘빵을 함께 나누 사이’라는 뜻이다. 우리 말에 ‘한술밥을 먹다’나 ‘식구가 가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식사 도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야기에 특별한 호감을 느낀다고 한다. 맛있는 음식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결정을 좀더 빠르고 충동적으로 내리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식사가 중요한 교류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는 식사 자리만큼 효과적인 자리가 없다. 유전자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무라카미 카즈오에 따르면, 술과 음식을 함께하는 사람들 간의 교류, 가까운 사람들과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을 ‘Eat & Drink’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그 자신이 이런 자리에서 새로운 발견의 계기를 얻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혁신은 주로 사람들 간의 만남, 그것도 서로 다른 영역과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클럽을 심는 코너입니다.

## 기고



조 영 조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다”라는 말은 결론코 목은 문자가 아니다. 이것은 역만년을 가고 또 가도 변할 수 없는 대진리다. 사람이 먹고사는 식량을 비롯해 의복, 주옥은 말할 것도 없고 상업 및 공업의 원료까지 하나도 농업의 생산에 기대지 않는 것이 없으니 마치 농민은 세상 인류의 생명 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다.”

윤봉길 의사의 ‘농민독본’ 내용 중 일부다.

새삼스럽게 이를 인용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 ‘국민생명산업’ 농업의 소중함

지금 우리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원자재 값 상승으로 농민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늘어 가고 설상가상 구제책 후유증으로 양축 농가 역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농업을 첨단과학과 접목되는 제3의 물결로 가치화하면서 산업발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농업이 첨단과학과 접목되면서 전통산업의 범주를 벗어나 생명산업으로 거듭날 것을 예견한 것이다.

오랜 세월 국민에게 제공해 온 농업의 각종 비교역적 기능과 공익적 혜택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다. 그것은 수자원 함양기능, 토양유실 경감기능, 대기 및 수질 정화기능, 자연경관 유지, 생태계 보전, 전통문화 계승, 지역사회 유지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몇 년 전부터 장마철이 따로 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기상청에서는 장마예보를 하지 않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날씨 변동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는 대부분 산업활동에 의해 생겨난 기체의 온실효과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호우피해가 심한 지역의 특징은 이른바 산업화, 도시화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자연 파괴가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묵묵히 국민생명 창조지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은 올해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묵묵히 영농현장을 지키고 있다. 무더운 여름에 녹색의 향연을 펼쳐 갈 농촌 들녘을 바라보면서 벼를 심어 놓은 논 또한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가를 생각해 본다.

자료를 의하면 논은 공익적 가치가 연간 19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홍수예방,

### 환경오염·비용 줄일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개발 시급

자고 일어나면 초고속으로 치솟는 기름값이다. 사정이 그런데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 여전한 미온적이다. 비싸기는 하지만 아직도 사들여올 기름이 넘쳐나기 때문인 듯 하다.

우리는 자국에 충분한 기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석 연료를 대체할 청정 에탄올 연구와 상용화에 힘쓰고 있는 미국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잘 알다시피 에탄올은 석유보다 훨씬 싸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미국 중서부의 대평원에는 한반도 크기의

무려 2배 정도인 옥수수 밭이 있다. 이곳에서 생산한 어마어마한 양의 옥수수는 가축의 사료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에탄올 제조용으로 쓴다.

이미 농촌 지역 곳곳은 에탄올 공장 건설 붐으로 새로운 서부 개척 시대를 맞고 있으며, 120여 개의 공장이 있고 80여 개가 건설중이라고 한다.

에탄올은 온난화의 주범인 자동차 가스 배출량도 80%를 줄일 수 있다. 미국의 각주는 휘발유에 대해 10% 정도의 에탄올을 섞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각종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에탄올의 연간

생산량은 미국 전체 석유 소비량의 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에탄올 생산을 지금보다 7배 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지하수보충 토양유실방지, 맑은 물 정화, 공기정화 등 이루어질 수 없다. 많은 국민은 IMF위기 때 굳건한 쌀의 지급기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말한다.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해 애그플레이션까지 우려하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들어 안전천 먹물겨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로컬푸드운동’에 관심이 많다.

‘로컬푸드운동’은 자기 지역 및 인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소비하자는 운동이다. 우리 몸엔 우리 것이 제일이라는 신토불이 운동과 같다.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과 줄기라는 말이 있듯이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살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농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다.

어려움을 처한 농업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다면 곳곳이 농촌을 지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무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시설

### 분만실도 없는 출산정책 가당한 일인가

장흥지역 주민들은 아이를 낳으려면 광주까지 100km를 자동차로 달려가야 한다. 강진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몇년 사이 지역 병원에서 운영하던 산부인과 분만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24시간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를 운영하기 위해선 고가의 의료장비와 3명 이상의 전문의가 필수지만 분만환자는 한달에 많아야 3명 정도여서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전국 출산율 1위인 강진군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산부인과 병원 유치를 나섰지만 실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떠들고 있지만 현실은 단 관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자연 분만 수가를 25% 인상해 연간 285억 원을 지원했지만 분만 업무를 담당하는 병·의원 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다. 광주지역만 하더라도 지난해 22곳이던 병·의원이 올해는 17곳으로 줄었다.

가임여성인구가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이 기피 대상이 된 것도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정부가 한가하게 분만 수가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분만실도 없는 출산정책이 가당한 일인가.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높아진 출산율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우선 도입과 시립병원에 산부인과 분만실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전남지역의 도입 의료진료원과 순천의료원, 목포시립 의료원 등을 거점지역 분만센터로 활성화 시킬 경우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존의 분만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 기피에 따른 부족현상이 더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광은發’ 고졸 채용 전 산업으로 확산돼야

지난 10여 년 동안 맥이 끊겼던 은행권의 고졸 출신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졸자의 취업문이 사실상 막히면서 나타난 학력 인플레이션 대졸자가 넘쳐나고 이는 청년실업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신선하고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은행권의 고졸 채용은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이 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은은 지난해 상반기에 은행권 최초로 4명의 고졸 출신 행원을 채용했다. 지난 1991년 이후 19년 만이다. 광은은 올해와 내년 하반기에도 각각 10명 규모의 고졸 행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광은에 이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올해 고졸 행원을 각각 5명, 8명 채용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20명의 고졸 행원을 채용했고 하반기에는 2배 늘어난 40명을 뽑을 예정이다. 광은이 처음으로 시도한 고졸 채용 바람이 국내 은행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0%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서민 가계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비싼 등록금을 주고 대학에 물리는 것은 과거 고졸 학력자를 뽑던 직종도 모두 대졸자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 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해주는 시대는 끝난 지 오래다. 각 가정마다 대학을 나오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빈둥빈둥 놀고 있는 자녀가 한두 명 있을 정도다. 요즘 대졸 출신은 30년 전의 고졸 출신보다 못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려면 ‘좋은 기업’들이 고졸 출신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20명의 고졸 행원을 채용했고 하반기에는 2배 늘어난 40명을 뽑을 예정이다. 광은이 처음으로 시도한 고졸 채용 바람이 국내 은행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것

## 無等鼓

1963년 6월 11일 베트남 사이공의 변화가. 500여 명의 승려와 경찰, 군인에게 둘러싸인 틱광독(65) 스님이 십자대로 한가운데 정좌하자 한 제자가 5갤런 짜리 통에 든 가솔린을 스님의 몸에 쏟아부었다. 목욕히 결과부파를 하고 있었던 스님이 손수 성냥을 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할랄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합장한 채 미동도 하지 않던 스님은 ‘앞으로 넘어지면 흥하되, 뒤로 넘어지면 투쟁은 승리하고 평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분신 직전의 예언을 상기시키려는 듯, 잠시 후 불붙은 몸을 스스로 뒤로 뒤엎었다. 현장을 지켜봤던 한 기자는 “불에 타면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부도탑 앞에서 최근 승려 출신의 이 모씨가 분신을 했다는 보도다. 분신이나 소신공양이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는 있다지만 사후처리는 마음대로 감당하려 누군가 자신의 몸을 불태웠다는 소식은 언제나 가슴을 저리게 한다. /홍행기정경부처장redplane@kwangju.co.kr

### 영원의 심장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康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대발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